

부 의 안 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의 안 번 호	2024-05
의 안 종 류	정책제안서 (의견제안)
소 관 위	인권상임위원회
발 의 연 원 일	2024년 9월 14일
발 의 의 원	조주연 의원
찬 성 의 원	조주연 의원 등 13명

고양시청소년의회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개편

1. 제안배경(환경분석, 제안이유)

이 제안은 친구들이 아프리카 흑인계열 외국인 노동자를 놀리는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수군수군하는 정도의 유치한 수준의,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말하거나 하는 등의 심각한 놀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대해 보니,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는 생각보다 심각하여, 그 점을 개선하려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제안 취지)

일터에서 불이익과 인권침해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지원, 사회 내 관습과 문화 이해 습득을 돕고 재산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3. 사업대상(수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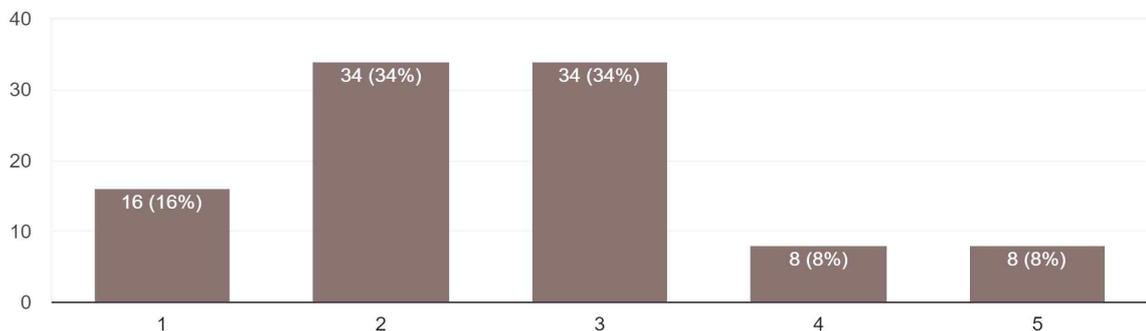
일터에서 인권침해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겪음에도 취직과 재산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

4. 현황 및 문제점(유관 정책 및 법률 / 기존 현황의 한계 등)

법무부는 2022년 1만 9,718명, 2023년에는 4만 674명을 계절 이주 노동자로 배정하였고, 2024년에는 전년 동기에 견주어 77.4% 늘어난 4만 9286명이 131개의 지자체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 근로자 제도는 현장에서 각종 노동권 위반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동자의 여권을 압류하거나 근로계약엔 없는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이탈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집중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탈을 막기 위하여 큰 액수의 귀국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는 등 인력송출 중개인, 일명 브로커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글로벌해지고 있으나, 가수나 유명인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외국인 노동자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고양시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는 2에서 3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별첨1).

3. 고양시 시민들에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응답 100개



별첨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시민 관심 수준

5. 정책제안(사업내용 /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위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 이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시 처벌하고, 그것을 검거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회사 내에서 차별적인 태도를 막는 법이나 제도가 필요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어 교류 지원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는 외국인 근로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노동 상담과 방역, 안전 물품을 지원 하는 등 노동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은 부족하다고 느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을 CEO와 근로자 사이에서 관리하는 등의 활동도 시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고양시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사업 내용 중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에 적응하고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지 감시하는 등의 활동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내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사업 참여에는 관심이 높으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 이므로, 사람들에게 인식 개선 교육을 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별첨2).

5.현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정책에 대하여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응답 1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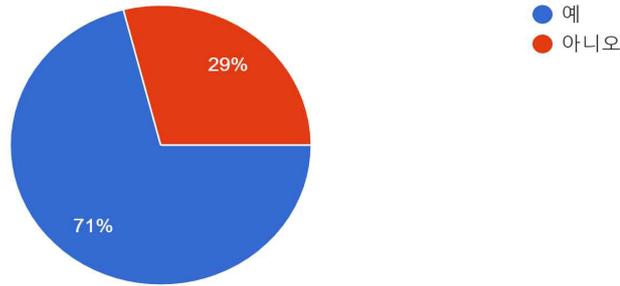


별첨2. 외국인 노동자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시민 의견

6. 사업효과(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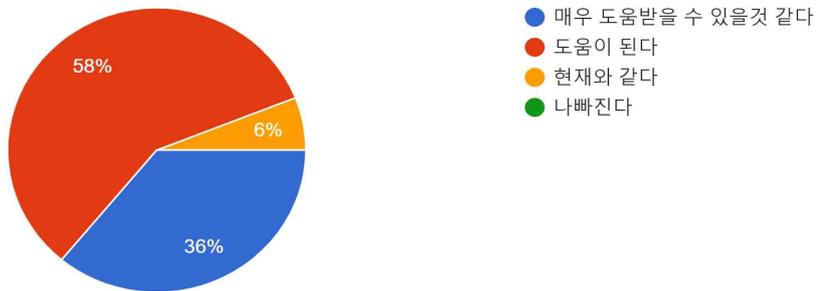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한 1차 설문조사 결과 71%가 자원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으므로, 고양시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하고 올바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별첨3, 별첨4).(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활동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서 제외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9.외국인 노동자 지원 및 교육에 대한 봉사 사업이 생긴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응답 100개



별첨3. 외국인 노동자 봉사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의향

10.외국인 노동자가 제대로 된 급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이 생겼을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100개



별첨4. 외국인 노동자 지원 활동의 효과에 대한 시민 의견

7. 소요예산(사업비)

고양시 외국인 노동자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인력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비용), 교육 및 훈련 비용(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용), 홍보 및 마케팅 비용(사업을 홍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비용), 자료 및 자원 구매 비용(교육 자료나 훈련에 필요한 비용), 활동비용(다양한 활동을 위한 비용), 운영비용(사무실 임대, 사무용품 구매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으며, 위 조례는 사업만 추가 하므로 현재에서 1,500~2,000만 원만 추가하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